

다문화가족의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Multicultural Aspects of Family Change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다문화사회의 촉진으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0년 181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약 9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특성도 해체된 다문화가족 및 재혼가족의 증가, 2세대와 3세대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부부간의 연령 및 학력수준 차이가 벌어지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다문화정책은 초기지원과 결혼이민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의 한계점을 드러낸다. 이에 보고는 기존 통계자료 및 2005년 여성가족부조사와 2009년 보건복지부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정책방안으로 다문화가족의 결손지속 제고를 위한 국제결혼문화 개선,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가족관계 정립,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빈곤예방,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국제결혼은 2000년 11,605명에서 2010년 34,23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에 전체결혼 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3.5%에서 10.5%로 3배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¹⁾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0년 181,671명²⁾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0.4%를 차지하며, 다문화가족 자녀 규모도 2010년 105,502명²⁾에 달하여서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20년에 351천명으로 향후 10년간 92.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³⁾.

최근 다문화가족의 평균 거주기간이 5~10년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족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

1)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 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함.

2) 행정안전부(2009. 8. 5.).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3)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애(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혼이 급증하면서 국제이혼건수는 2005년 4,171명에서 2010년 11,245명으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혼형태도 초혼중심에서 점차 재혼가족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부부간의 연령과 학력수준 차이도 벌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가족형태도 부부중심의 핵가족에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3세대가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다문화가족의 초기지원과 결혼이민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한다. 또한, 가족간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이 급증하여 가족해체 현상이 누적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 부재하다. 정책접근 방식도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가족 등 대상별로 실시하여 가족차원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정책효과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드러낸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는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다문화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다문화가족의 양적측면에서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변화를 결혼경로 및 가족형성시기, 결혼형태, 부부 특성, 다문화가족구성 및 관계, 다문화가족의 해체 등을 중심으로 진단하고 시사점을 도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전망

1) 다문화가족의 현황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1,605건으로 2.5배 증가하였고, 2002년 이후 매년 10,000건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42,356건에 이르다가 200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34,235건에 달하였다. 1990년대 이후 2005년에 이르기까지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 및 노동시장환경의 변화, 그리고 혼인시장의 불균형과 출산율 저하 및 농촌지역의 여성인구수 감소 등 인구학적 변화를 비롯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증가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5년 이후 국제결혼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난립에서 오는 부작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중개업체의 관리를 강화한데서 오는 영향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 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5년에 13.5%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2005년 이후 소폭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2010년까지 약 11%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의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표 1. 연도 및 혼인형태별 국제결혼추이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0년	399,312	4,710	1.2	619	0.2	4,091	1.0
1995년	398,484	13,494	3.4	10,365	2.6	3,129	0.8
2000년	332,090	11,605	3.5	6,945	2.1	4,660	1.4
2003년	302,503	24,776	8.2	18,751	6.2	6,025	2.0
2005년	314,304	42,356	13.5	30,719	9.8	11,637	3.7
2007년	343,559	37,560	10.9	28,580	8.3	8,980	2.6
2008년	327,715	36,204	11.0	28,163	8.6	8,041	2.5
2009년	309,759	33,300	10.8	25,142	8.1	8,158	2.6
2010년	326,104	34,235	10.5	26,274	8.1	7,96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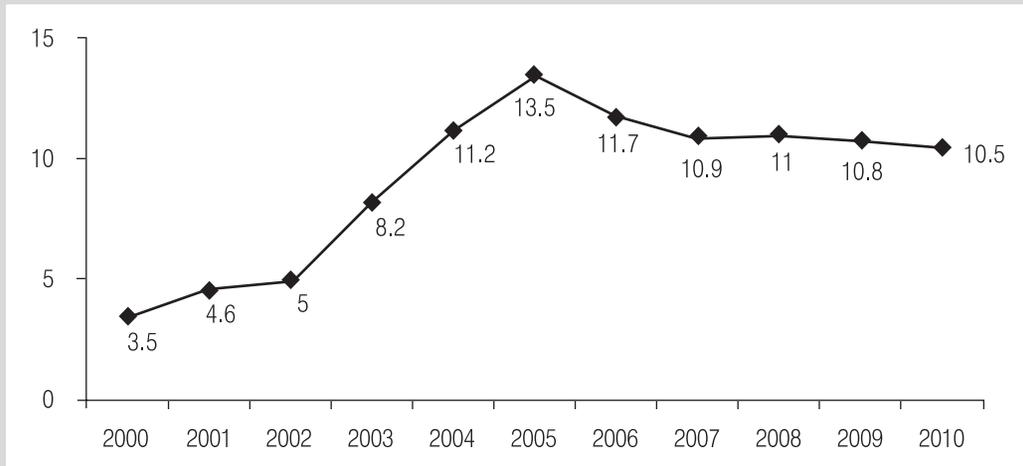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보여 2005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72.5% 분포를 보였고, 2005년 이후 여성 결혼이민자수는 소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국제결혼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2010년에 76.7%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결혼이민자수는 1990년에는 여성 결혼이민자보다 6.6배 높

그림 1. 연도별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았으나, 1995년에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다시 2000년대 초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27.5%를 차지하다가, 2005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0년 전체 국제결혼의 23.3%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결혼중개업체의 난립으로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성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다문화가족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미국 또는 일본남성과 한국여성의 국제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는 한국남성과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저개발국 출신 외국여성과의 결혼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07~2010년 기간 동안 약 5만 5천명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181,671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0.4% 비율을 보였다. 다문화가족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8년에 13.7%이었고,

표 2.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

(단위: 명)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아시아	계	6,945	9,684	10,698	18,751	25,105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26,274
	중국	3,566	6,977	7,023	13,347	18,489	20,582	14,566	14,484	13,203	11,364	9,623
	베트남	77	134	474	1,402	2,461	5,822	10,128	6,610	8,282	7,249	9,623
	필리핀	1,174	502	838	928	947	980	1,117	1,497	1,857	1,643	1,906
	일본	819	701	690	844	809	883	1,045	1,206	1,162	1,140	1,193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804	659	851	1,205
	태국	240	182	327	345	324	266	271	524	633	496	438
	몽골	64	118	194	320	504	561	594	745	521	386	326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8	247	332	314	351	492	365	317
	기타	962	1,004	969	1,218	1,252	1,136	1,236	1,359	1,354	1,648	1,643
아메리카	계	4,660	4,839	4,504	6,025	9,535	11,637	9,094	8,980	8,041	8,158	7,961
	일본	2,630	2,664	2,032	2,250	3,118	3,423	3,412	3,349	2,743	2,422	2,090
	중국	210	222	263	1,190	3,618	5,037	2,589	2,486	2,101	2,617	2,293
	미국	1,084	1,113	1,204	1,222	1,332	1,392	1,443	1,334	1,347	1,312	1,516
	캐나다	150	164	172	219	227	283	307	374	371	332	403
	호주	78	78	90	109	132	101	137	158	164	159	194
	영국	64	69	86	88	120	104	136	125	144	166	178
	파키스탄	36	63	126	130	100	219	150	134	117	104	102
	독일	82	94	81	94	109	85	126	98	115	110	135
	기타	326	372	450	723	779	993	794	922	939	936	1,05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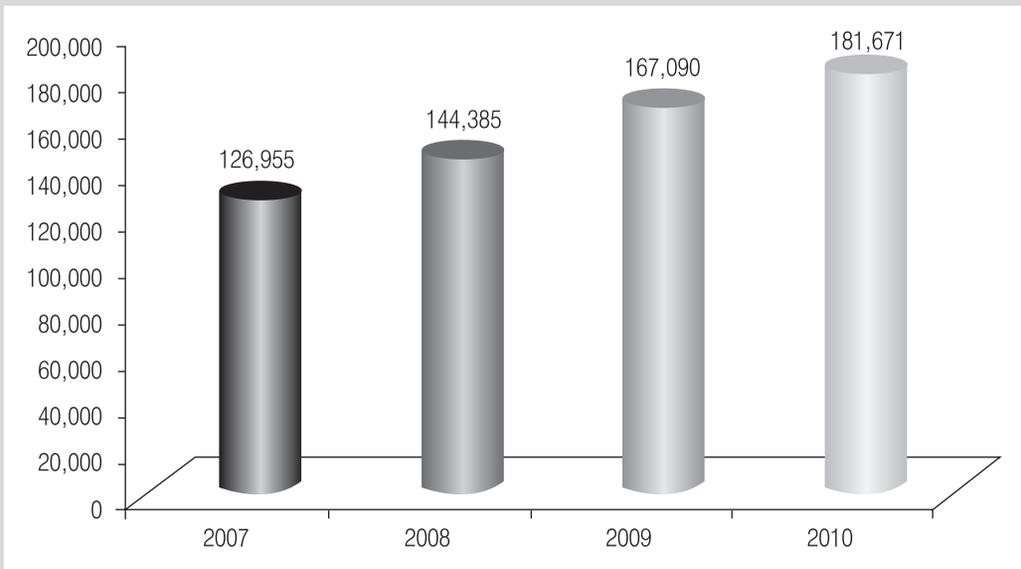
2009년에는 15.7%, 그리고 2010년에는 8.7%로 나타나서 2008년과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자녀규모는 2007~2010년 기

간 동안 약 6만명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5,502명에 이른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08년에 31.1%이었고, 2009년에는 71.8%, 2010년에는 5.8%로 나타나서 2008년과 2009년에 비하여 2010년에는 전년대

그림 2. 연도별 다문화가족 규모

(단위: 명)



- 자료: 1) 행정안전부(2008. 2). 2007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2) 행정안전부(2008. 7. 31). 2008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3) 행정안전부(2009. 8. 5).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4) 행정안전부(2010. 6. 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표 3. 다문화가족 자녀의 규모

(단위: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녀규모	44,258	58,007	99,684	105,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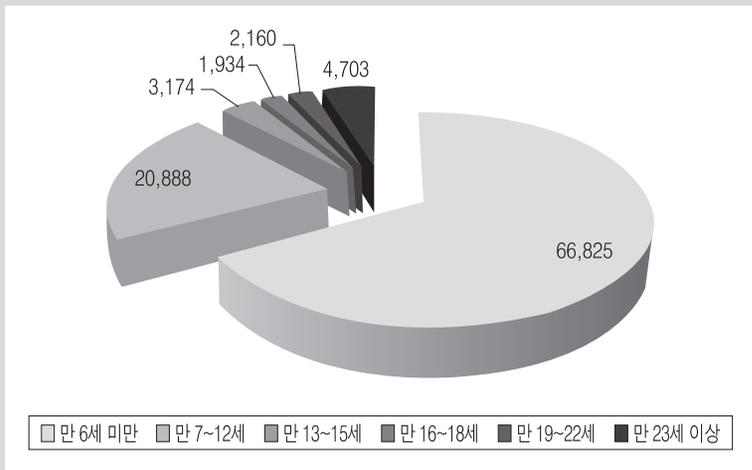
- 자료: 1) 행정안전부(2008. 2). 2007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2) 행정안전부(2008. 7. 31). 2008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
 3) 행정안전부(2009. 8. 5).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4) 행정안전부(2010. 6. 11).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비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2009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만 6세 미만이 67.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7~12세가 21.0%, 13~18세가 5.1%, 19세 이상이 6.9%로 다수가 영유아와 초등학교 자녀로 나타났다.

그림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규모(2009년)

(단위: 명)



자료: 행정안전부(2009. 8. 5).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조사 결과.

2) 다문화가족의 전망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국가 간에 정보교환의 속도가 빨라지고 거리감이 감소함에 따라 다양성의 추구하고 함께 다문화사회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확대로 만혼화 내지는 결혼 기피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혼인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농촌과 도시 저소득층의 남성 등은 배우

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전망이다. 또한, 국내외 이주산업(국제결혼 중개업 등)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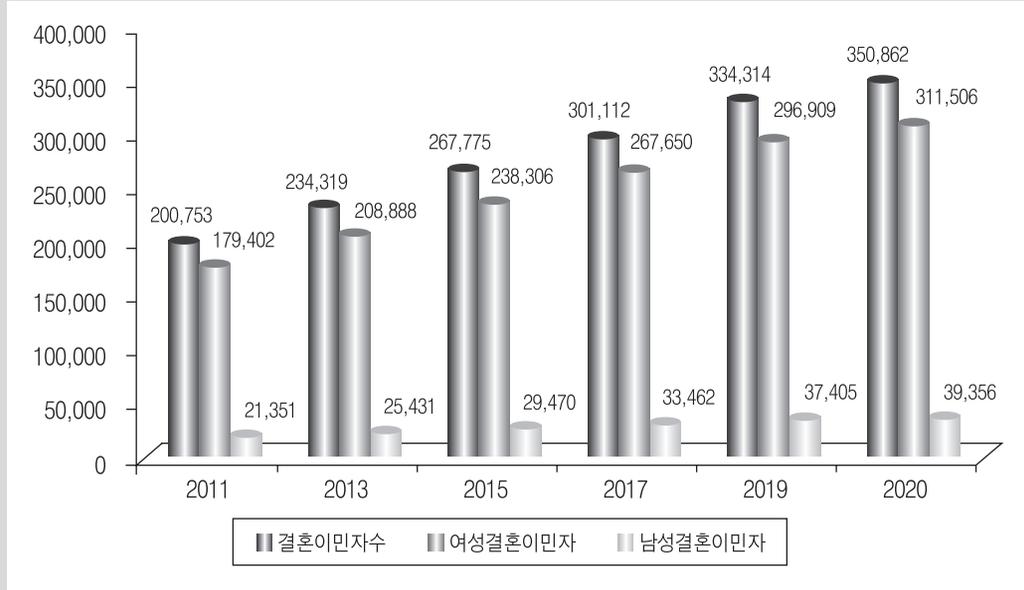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이 본국인(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경향은 국내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 등의 정책적 변화는 다문화사회를 촉진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국인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2010년 181,671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93.2%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동 기간 161,999명에서 312천명으로 92.6%가 증가하며, 남성 결혼이민자는 2010년 19,672명에서 2020년 39천명으로 98.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그림 4. 다문화가족의 전망(2011~2020년)

(단위: 명)



자료: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애(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결혼이민자에 비해 2010년 8.2배가 높았으나, 2020년에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격차는 8.0배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결혼 중 한국인남편-외국인아내 형태가 지배적이나 점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남편-한국인아내 형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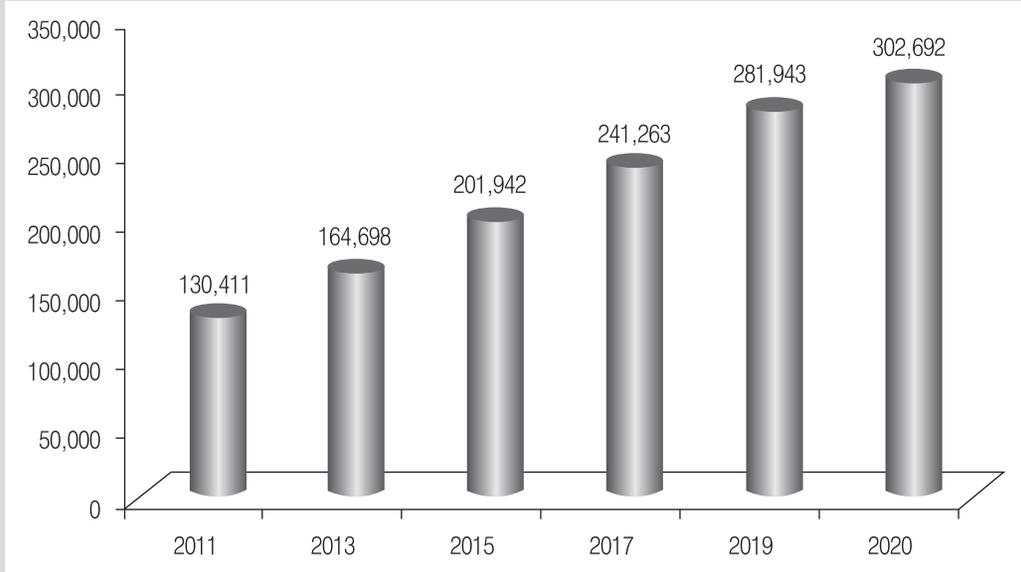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10년 105,502명에서 2020년 302.7천명으로 약 3배(186.9%) 증가할 전망이다. 연령분포는 만 6세미만은 2009년

66.8천명에서 2020년 156.2천명으로 100% 이상 증가하고, 만 7~12세는 동 기간 20.1천명에서 86.6천명으로 4배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만 13~18세는 5.1천명에서 36.1천명으로 7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만 19세 이상은 6.9천명에서 23.9천명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구조는 영유아기 아동은 점차 감소하는 대신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4)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애(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용

그림 5. 다문화가족 자녀의 전망(2011~2020년)

(단위: 명)



자료: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애(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3. 다문화가족의 특성 변화

1) 결혼경로 및 가족형성시기의 변화

다문화가족의 결혼경로는 2005년에는 가족·친척·친구의 소개로 만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스스로 해결하였거나 결혼중개업체와 종교기관 등을 통하여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가족·친척·친구의 소개, 결혼중개업체, 스스로, 그리고 종교기관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보다 결혼중개업체와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가 많았다. 남성 결혼이민자는 90.7%가 가족·친척·친구의 소개와 스스로 해결하여서 전체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의 결혼경로로 가족·친척·친구의 소개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결혼중개업체, 스스로 해결, 종교기관 순으로 나타나서 2005년에 비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증가한 반면,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경우는 감소하였고, 스스로 결혼하는 경우도 다소 감소하였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2005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오면서 종교기관을 통한 결혼은 감소하였으나,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즉 결혼의 상업화에서 오는 사전정보부실 및 상호

이해부족 등 결혼중개업체의 폐단으로 인해 결혼형성과정부터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예상되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평균 결혼연령은 2000년 34.18세에서 2005년 37.74세로 5년 동안 3.56세가 높아지다가 2006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7.18세로 2005년보다 0.56세가 낮아졌다. 이는 국내결혼한 한국남성의 평균 결혼연령보다 5~7세가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혼한 한국여성의 평균 결혼연령도 2000년 29.90세에서 2005년 31.80세로 5년간 1.9세 높아졌고 2006년 이후 증감하다 2008년에 30.69세로 2005년보다 1.11세가 낮아졌다. 국내결혼한 여성의 평균 결혼연령보다 2~4세가 높았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한 경우 국내결혼보다 결혼연령이 높은 것은 재혼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만혼의 가능성도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제결혼의 고연령화 현상은 다문화가족의 이혼 및 재혼의 누적으로 지속될 것

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제결혼의 결혼연령이 높다는 것은 가족형성시기가 늦어짐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가족주기가 지연됨을 의미하여서 출산·자녀양육·생활안정·노후준비 등에서 일반가정보다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2) 결혼형태의 변화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는 2005년 초혼이 71.8%, 재혼이 28.2%이었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초혼이 12.6%pt 높았다. 이에 비해 2009년의 다문화가족 결혼형태는 2005년보다 초혼이 6.8%pt 감소한 반면, 재혼이 증가하였고, 성별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재혼이 증가한 비율이 높았다. 다문화가족의 재혼비율은 한국인의 23.8%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이혼 추이

표 4. 다문화가족의 현 배우지 만난 경로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결혼중개업체	가족, 친척·친구의 소개	종교기관	스스로	기타	계수
2005년	17.7	45.7	14.3	20.0	2.3	100.0(1,117)
여성결혼이민자	19.5	45.7	15.4	17.2	2.1	100.0(1,010)
남성결혼이민자	0.9	44.9	3.7	45.8	4.7	100.0(107)
2009년	25.1	46.4	6.4	18.2	3.9	100.0(117,854)
여성결혼이민자	27.0	47.0	6.7	15.8	3.5	100.0(108,772)
남성결혼이민자	2.1	39.8	3.7	46.0	8.4	100.0(9,082)

자료: 1)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남편, 부인 모두 초혼인 경우는 76.3%이었고, 부인초혼, 남편 재혼은 4.6%, 부인 재혼, 남편 초혼은 6.3%, 부

표 5. 국제결혼한 한국인의 결혼연령

(단위: 세)

구분	한국남자의 평균초혼연령		한국여자의 평균초혼연령	
	한국인배우자	외국인배우자	한국인배우자	외국인배우자
2000년	29.14	34.18	26.44	29.90
2003년	29.80	36.40	27.26	30.44
2005년	30.28	37.74	27.78	31.80
2006년	30.43	37.28	28.01	30.74
2007년	30.65	37.22	28.26	31.16
2008년	30.90	37.18	28.57	30.6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를 고려할 경우 재혼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외국인가족의 증가도 예상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가 재혼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다문화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 및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외에 새로운 가족 형성에서 오는 갈등과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이중, 삼중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

녀구성이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형제간의 문화·정서적 적응 및 자녀양육 등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여서 재혼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의 연령별로 결혼형태의 차이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30대 중반까지는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이 77~86%의 수준을 보이다

표 6.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의 변화

(단위: %, 명)

구분	2005년					2009년				
	부인·남편 모두 초혼	부인초혼·남편재혼	부인재혼·남편초혼	부인·남편 모두 재혼	계(수)	부인·남편 모두 초혼	부인초혼·남편재혼	부인재혼·남편초혼	부인·남편 모두 재혼	계(수)
전체	71.8	4.8	7.6	15.8	100.0(1,169)	65.0	9.3	7.6	18.1	100.0(110,787)
여성결혼이민자	73.0	5.0	7.0	15.0	100.0(1,002)	65.6	9.6	7.2	17.6	100.0(102,412)
남성결혼이민자	60.4	2.0	13.9	23.8	100.0(113)	57.6	5.9	12.7	23.8	100.0(8,375)

자료: 1)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 남편 모두 재혼은 12.9%이었음.

가 30대 후반에는 약 6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40대 후반부터는 재혼이 초혼의 2배 수준을 보이다가 50세 이상에서는 90%가 재혼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이민자 연령이 34세 이하에서는 다수가 초혼형태이나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재혼이 급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혼지속기간과 결혼연령의 차이를 반영하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혼과 재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부부특성의 변화

다문화가족 부부의 평균연령은 2005년 여성 결혼이민자는 33.1세, 남편은 42.0세로 부부간에 8.9세의 차이를 보였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38.1세, 부인은 36.0세로 2.3세 차이로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부부간에 연령차이가 약 4배 높았다. 2009년에는 여성 결혼

이민자는 33.3세, 남편은 43.2세로 부부간에 9.9세 차이를 보여 2005년보다 연령차이가 1세가 더 벌어졌다. 그리고, 남성 결혼이민자는 41.6세, 부인은 40.3세로 부부간에 1.3세 차이로 2005년보다 연령차이가 1세 좁아졌다. 따라서 부부간의 연령차이는 여성 결혼이민자는 벌어지는 경향을, 남성 결혼이민자는 좁아지는 추세를 보였다.⁶⁾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 부부간의 연령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재혼이 많아지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부간의 높은 연령 차이는 가족생활에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교육수준은 2005년 결혼이민자는 중학교 이하가 33.7%, 고등학교 이상이 66.3%이었고, 배우자는 중학교 이하가 26.9%, 고등학교 이상이 73.1%로 결혼이민자

표 7. 다문화가족의 연령별 결혼형태

(단위: %, 명)

구분	부인, 남편 모두 초혼	부인 초혼, 남편 재혼	부인 재혼, 남편 초혼	부인, 남편 모두 재혼	계(수)
전체	65.0	9.3	7.6	18.1	100.0(116,205)
24세 이하	86.1	12.7	0.5	0.6	100.0(22,646)
25~29세	84.2	11.8	2.1	1.9	100.0(23,101)
30~34세	77.0	9.9	6.7	6.4	100.0(21,285)
35~39세	60.7	7.9	13.1	18.4	100.0(20,273)
40~49세	32.6	5.1	16.3	46.0	100.0(21,972)
50세 이상	10.4	5.4	8.4	75.8	100.0(6,928)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인구동태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평균연령차이는 2000년 6.9세, 2005년 9.1세 2008년 11.8세로 벌어지고 있으며,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의 평균연령차이는 2000년 6.6세, 2005년 2.7세 2008년 4.1세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표 8. 다문화가족의 평균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여성결혼이민자				남성결혼이민자			
	부인 본인	남편	연령차이	(분석대상수)	남편 본인	부인	연령차이	(분석대상수)
2005년	33.1	42.0	8.9	(1,038)	38.1	36.0	2.3	(110)
2009년	33.3	43.2	9.9	(111,979)	41.6	40.3	1.3	(10,594)

자료: 1)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과 남성 결혼이민자 모두에서 동일하였다. 2009년에는 결혼이민자는 중학교 이하가 35.5%, 대학 이상이 64.5%이었고, 배우자는 중학교 이하가 23.9%, 대학 이상이 76.1%로 2005년에 비해서 결혼이민자보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남성 결혼이민자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교육수준은 결혼이민자보다 배우자가 높으며, 부부간의 학력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벌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부부

간의 교육수준의 차이는 가족안정에 위협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전문프로그램 개입이 필요하다.

4) 다문화가족구성 및 관계의 변화

다문화가족의 구성은 2005년에는 부부중심이 3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24.6%, 부부와 배우자 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12.3%, 부부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족으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도 9.0%

표 9. 다문화가족의 교육수준

(단위: %, 명)

구분	결혼이민자				배우자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계(수)
2005년	33.7	40.3	26.0	100.0(1,156)	26.9	52.6	20.5	100.0(1,143)
여성결혼이민자	35.2	39.7	25.1	100.0(1,042)	28.0	53.7	18.3	100.0(1,033)
남성결혼이민자	19.5	46.0	34.5	100.0(113)	17.3	41.8	40.9	100.0(110)
2009년	35.5	42.0	22.5	100.0(130,390)	23.9	51.2	24.9	100.0(119,326)
여성결혼이민자	36.5	42.7	20.8	100.0(118,961)	23.9	52.3	23.8	100.0(108,666)
남성결혼이민자	24.5	34.9	40.6	100.0(11,429)	23.8	39.8	36.4	100.0(10,658)

자료: 1)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로 나타났다. 2009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족이 3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족이 26.3%, 그리고 부부와 자녀, 배우자로 이루어진 3세대 가족이 16.1%, 부부와 배우자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9.7%이었다. 다문화가족구성의 변화는 가족형성기에서 자녀출산·양육기로 진행되면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에서 2세대 핵가족과 3세대가족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부부와 자녀 그리고 본가가족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미미하나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가족형태는 다문화가족주기가 확대기로 접어들면서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

원은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모세대 등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족간의 관계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와 가장 힘든 관계는 2005년에는 배우자 어머니가 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기타 가족 등이었고 자녀 때문에 힘든 경우는 미미하였다. 2008년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서 핵가족 중심의 가족구조 하에서도 배우자가족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게 나타났다. 향후 3세대가족의 확대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가족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체를 예방하

표 10. 다문화가족구성 변화

(단위: %, 명)

구분	본인	본인+ 자녀	부부	부부+ 본가가족	부부+ 배우자가족	부부+ 자녀	부부+자녀+본가가족	부부+자녀+ 배우자가족	계(수)
2005년	9.8	1.7	39.2	2.6	12.3	24.6	0.5	9.0	100.0(1,117)
2009년	3.3	2.7	26.3	1.4	9.7	36.7	3.7	16.1	100.0(117,854)
여성결혼이민자	3.1	2.8	25.0	1.4	10.3	36.5	3.8	17.2	100.0(109,734)
남성결혼이민자	5.2	1.4	41.6	1.8	4.0	39.1	2.4	4.4	100.0(9,546)

자료: 1)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1. 다문화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

(단위: %, 명)

구분	없음	배우자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기타 가족	나의 자녀	기타	계(수)
2005년	72.2	4.1	0.8	8.2	3.7	1.4	0.8	8.9	100.0(1,177)
2008년	52.1	10.2	4.4	14.4	8.0	3.6	1.6	5.7	100.0(1,024)

자료: 1) 설동훈 외(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 위해서 전문적인 가족관계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5) 다문화가족의 해체 증가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1996년 1,649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4,171건으로 2.5배 증가하였고, 2008년에 11,255건으로 3년간 무려 2.7배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는 11,245건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전체 이혼 대비 국제결혼의 이혼비율은 1996년 2.1%에서 감소하다 2004년에 2.4%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7.0%, 2008년에는 9.7%로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이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비율은 2003년까지는 1% 미만수준으로 남성 결혼이민자에 비해 낮았

나,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남성 결혼이민자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이혼이 2005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동 기간에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으며, 특히 결혼중개업체 및 종교기관 등 외부개입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조건 등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실제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이유로 배우자와의 성격차이,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외도, 학대와 폭력, 심각한 정신장애, 음주 및 도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⁷⁾. 향후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구조적인 갈등과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남성과 여성결혼이민자 사

표 12. 연도별 다문화가족 이혼추이

(단위: 건, %)

연도	총 이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6년	79,895	1,649	2.1	140	0.2	1,509	1.9
2001년	134,608	1,694	1.3	387	0.3	1,307	1.0
2003년	166,617	2,012	1.2	547	0.3	1,465	0.9
2005년	128,035	4,171	3.3	2,382	1.9	1,789	1.4
2007년	124,072	8,671	7.0	5,707	4.6	2,964	2.4
2008년	116,535	11,255	9.7	7,962	6.9	3,293	2.8
2009년	123,999	11,692	9.4	8,300	6.7	3,392	2.7
2010년	116,858	11,245	9.6	7,904	6.8	3,341	2.8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 <http://kosis.nso.go.kr> 계산

7)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용

이의 이혼이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의 해체는 자녀양육 및 결혼이민자의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여 취약계층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결혼지속기간은 5년 미만인 53.2%로 과반수에 해당되었고, 5~10년 미만이 25.7%, 10년 이상이 21.2%, 15년 이상인 경우도 13.8%나 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평균 결혼지속기간은 4.7년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는 남성 결혼이민자보다 결혼지속기간으로 5년 이상인 비율이 9.2%pt 높은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5년 미만인 비율이 높았다. 이를 반영한 평균 결혼지속기간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남성보다 0.1년이 길었다. 이와 같이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결혼지속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것은 가족형성기와 자녀양육기 사이에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여 가족형성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적응상의 갈등과 자녀출산·양육에서 오는 어려움이 해체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동시기에 다문화가족 해체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정책방안

1) 다문화가족의 결혼지속 제고를 위한 국제 결혼문화 개선

다문화사회의 촉진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2010년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181,671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93.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형태가 지배적이나 점차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아내 형태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경로의 특성은 과반수 이상은 가족·친구나 또는 본인 스스로 등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나 3분의 1 정도는 결혼중개업체 또는 종교기관 등 외부에 의해서 결혼이 선택되고 있다. 특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결혼의 상업화에서 오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및 상호이해부족 그리고 소개료 과잉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방식은 가족형성단계부터 배우자에 대한 실망, 상호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가족해

표 13. 해체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계수	평균
전체	29.0	24.2	25.7	7.4	13.8	100.0(4,820)	4.7
여성결혼이민자	28.1	24.5	26.2	7.5	13.7	100.0(4,549)	4.8
남성결혼이민자	43.0	18.9	17.8	4.8	15.6	100.0(270)	3.8

자료: 김승권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결혼방식은 결혼지속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다문화가족 부부특성의 중요한 변화는 부부간에 연령 및 학력수준 차이가 점차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들 요인은 결혼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령 및 학력 차이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가족구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부부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국제결혼문화의 정착이 요구된다.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상업적 결혼 폐단의 원인인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불법결혼중개를 차단하고, 결혼중개 시 배우자에 대한 정밀한 정보 제공 등 결혼중개과정과 비용부담에 대한 투명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 준비과정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분석과 이에 근거한 각종 정보제공 및 사전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연령과 교육수준의 차이가 가족생활과 부부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례소개와 교육 등으로 예기되는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가족관계의 정립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가족형성기에서 자녀출산·양육기로 진행되면서 부부중심의 가족구조에서 2세대 핵가족과 3세대 확대가족형태

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강화를 위해서는 부부 중심의 집중적인 관계에서 부부와 자녀 그리고 부모세대 간의 원만한 가족관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중 가장 힘든 관계는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는 언어소통 및 문화갈등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될 경우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 간의 적절한 관계형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방안으로는 첫째, 가족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가족주기별 가족관계정립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족형성단계에서는 올바른 부부관계상과 노부모-성인자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그리고, 자녀출산전 단계에서는 부모-자녀관계의 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자녀양육의 방법,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개념 및 예방대책, 자녀에의 과도한 기대금지, 자녀의 사회화 교육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 본국의 문화권에서의 가족관계 특성을 한국가족관계와 비교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와 가족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빈곤예방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 1,694건에서 2010년 11,245건으로 동 기간 동안 6.6배가 증가하였다. 전체 이혼대비 국제결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1.3%에서 2010년 9.6%로 거의 10%에 이르며 특히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와의 이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이혼은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문화가족의 잠재된 갈등과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해체된 다문화가족의 결혼 후 이혼·사별까지의 기간은 평균 4.7년으로 나타나서 가족형성기와 자녀양육기에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과 자녀출산·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해체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해체다문화가족을 위한 보호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해체의 지속적인 증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생산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다문화시대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형성기의 적응력제고를 위해서 가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하여 부부를 비롯하여 부모교육 및 상담, 가족관계 교육 및 상담 등 가족단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교육콘텐츠는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결혼 초기에 갈등과 긴장을 야기하는 문화적 차이 및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갈등의 완화와 가족문제의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는 여러 가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외상후 증후군이나 이주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 및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자녀양육기술 및 교육을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와 사례를 공유한다. 넷째, 해체다문화가족의 빈곤 예방을 위하여 빈곤직면가족을 대상으로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자산형성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결혼이민자의 인적자원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4)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제고

다문화가족의 결혼형태는 부인, 남편 모두 초혼이 높은 편이나 점진적으로 초혼이 감소하고 재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한국남성과 결혼한 여성 결혼이민자에서 재혼이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재혼 비율은 2009년 35.0%로 이는 한국인의 23.8%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빠르게 증가하는 이혼추이를 감안할 때 재혼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혼한 다문화가족은 일반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가족간 갈등과 사회적 소외 외에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혼란과 갈등에서 오는 가족 스트레스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인종의 자녀구성으로 인해 가족간의 적응과 통합, 그리고 자녀양육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지원대상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일반 다문화가족

에만 국한하고 있어서 재혼가족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의 발생도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가족 기능을 제고하고 건강하게 보호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혼가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다양한 정책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범위에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일반 다문화가족 외에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및 자

녀, 재혼한 다문화가족 등을 포괄하므로써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예비재혼가족을 포함한 재혼가족의 가족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가족간 적응과 통합을 위해서 재혼가족 대상의 가족생활 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셋째, 재혼가족의 심리·정서적 유대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중심의 개인 및 가족상담, 치료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건복지**